

# 도널드 파울러 박사, 구약 배경, 강의 14, 바다 민족

© 2024 돈 파울러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Dr. Don Fowler입니다. 세션 14, 바다민족입니다.

자, 우리는 새 테이프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고, 그러는 동안 나는 우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나은 시각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새 테이프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너.

내 컴퓨터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기술자들이 내가 보여드릴 수 없는 내 교육에 중요한 많은 것들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서야 발견해서 아까부터 보여주지 못했는데, 해양민족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먹거리들을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그들의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던 품목의 사진입니다. 보리는 매우 강건하고 밀도 재배했기 때문에 정말 왕이었습니다.

포도를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가끔 먹는 음식인 석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무화과, 대추야자, 올리브 등 그들의 식단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식품 공급원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다양한 종류의 야채를 먹었지만 그것은 순전히 계절에 따른 것이므로 대부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구석에 보면 플라타너스 무화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플라타너스 무화과는 끔찍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인간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동물성 식품으로 사용되었고, 따라서 이것은 최소한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단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당분간은 제 비주일이 거의 다 사라진 아주 중요한 주제 영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데, 더 의미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대담한 발언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제외한 다른 어떤 사건도 바다 민족 운동만큼 이스라엘 군주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 성명을 더욱 대담하게 표현하여 이 지역의 인류 역사상 이른바 바다민족 운동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거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사용되는 바다민족운동이라는 용어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집트인들로부터 그것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이 바다 민족 운동은 성경 세계에 있어 참으로 변화무쌍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민족 이동을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한 진정한 혼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50년 동안 성경을 공부한 후 고고학이 우리 세상에 대해 점점 더 많은 빛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0년 전보다.

아이러니하고 흥미롭게도 바다민족 운동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유동적입니다. 즉, 오늘날 사람들은 모순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이것에 관한 일부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건 자체는 이 기념비적인 인력 이동의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동부 지중해 전체의 많은 부분이 이동 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읽은 내용에 비추어 그 진술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동부뿐만 아니라 중앙 지중해까지 서쪽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분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약 100년 동안 조상의 고향에서 지중해 세계의 다른 곳으로 이주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당연히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들은 어디서 왔어요?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었나요? 그 운동의 효과는 무엇이었는가? 명확한 답변보다 질문이 더 많습니다. 사실, 바다 민족 운동이라고 불리는 이주가 1250년부터 1150년까지 약 100년, 10~20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미케네의 옛 권력 중심지가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노아와 아나톨리아의 속국들은 사실상 고대 세계 전체를 붕괴시킬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새로운 세계 지도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미케네는 우리가 그리스라고 부르는 지역의 대부분을 지배했던 위대한 문명이었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트로이 전쟁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민족 운동 이전에는 미케네인들이 지중해 동부 절반 무역의 중요한 부분을 통제했던 것 같습니다.

미노아인들은 크레타 섬을 통치했으며 지중해 동부 무역에 관여하는 중요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 역시 정치적 주체가 붕괴된 지역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터키라고 부르는 곳의 서쪽 해안에는 아나톨리아 속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고대 세계의 권력 구조의 상당 부분이 붕괴되었고, 그것이 고대 세계의 전체 지도를 재배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가 아는 고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 외에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려운 일이라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등을 설명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다양한 참가자들의 신원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미스터리가 아나톨리아의 역사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사용해 왔지만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나톨리아는 우리가 터키라고 부르는 이 지역의 이름입니다.

하티아인 이나 히타이트 인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인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일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에게 그리스 동쪽 지역은 해가 뜨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톨리아라는 용어가 유래된 곳입니다. 따라서 아나톨리아는 국가 이름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역 이름은 아닙니다. 태양이 뜬 그리스 동쪽 지역의 이름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나톨리아라고 부르는 곳에서는 정치적 실체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남쪽의 아시리아와 북쪽의 카슈카 로부터 이미 약화된 히타이트 제국에 대한 엄청난 압력은 대제국 히타이트 제국을 크게 약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 권력이 약화되면서 속국들은 내외 세력의 압력으로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 중 하나는... 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해양 인민 운동이 끝났을 때 모든 강대국들이 이 결과로 사라졌거나 곧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집트도 직접적인 충격에서 살아남았지만 해양 인민 운동 이후 이집트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인류 역사상 알고 있는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지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히타이트 제국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터키라고 부르는 현대 지역이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무너졌습니다. 히타이트인들이 강대해지기 위해서는 에게 해를 따라 있는 서부의 속국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들을 잃었을 때, 점차적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제 생각엔 히타이트 왕국의 권력이 내부적으로 무너졌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제국이 무너졌을 때, 대략 그와 동시에 크레타 섬 또는 미노아인의 거대한 정치적 실체인 미케네 왕국의 붕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가라앉으면 이집트를 제외한 모든 강대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집트도 제한적입니다.

이집트 자료를 통해 우리는 이 놀라운 민족 운동에 참여했던 일부 부족이나 민족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250년에서 1150년 사이에 있다면 연대순으로 우리가 사사기의 한가운데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은 왕정 이전, 사사기 중반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요소 중 하나는 Shardana였습니다. 이것은 시리아 북쪽 극북에 본거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쫓겨난 것 같으며 바다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특정 요소는 Ramses III 비문에 나타나지만 대부분은 서쪽으로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혼란 속에 있는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리자면, 바다 민족 운동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사르데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 민족 운동에서 샤페나가 여기 이 지역에서 왔는지, 아니면 저 지역으로 돌아왔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그들이 바다 민족 운동의 일부였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르디니아와 샤페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르데냐에서 왔는지, 돌아갔는지에 따라 우리의 정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바다 민족 운동에서 언급된 두 번째 부족은 셰켈레쉬(Shekelesh)입니다. 그들의 원래 고향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시칠리아의 시칼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erneptah 시대의 초기 리비아 침공과 가장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민족운동의 두 가지 큰 물결을 겪었습니다. 이전 것은 1220년경이고, 다른 것은 1190년경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섬들이 우리가 시칠리아 섬이라고 부르는 섬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어에서는 알파벳 c인 c가 s처럼 발음될 수도 있고 고양어처럼 k처럼 발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고대 언어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c 소리가 항상 k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칠리아라고 말하는 데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시칠리아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온 이 부족 또는 부족들은 이 지역에서 왔고 동쪽으로 이동했거나 다른 곳에서 왔고 동부의 착취에서 이동하여 돌아오거나 시칠리아 섬으로 향했습니다. 보시다시피 Shekelesh 라는 단어에서 Sicily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Teresh 또는 Tursha는 서부 아나톨리아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람세스 3세의 비문에 언급되어 있지만 주요 세력은 아닙니다. 그들은 북부 이탈리아의 에트루리아인과 연결되었을 수 있습니다. Tersha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트루스카(Etrusca) 또는 테르샤(Tersha) 라는 중요한 정치적 실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는 질문은 이 무리의 사람들이 동쪽을 공격할 때 그들이 테르샤에서 왔느냐, 아니면 테르샤로 갔느냐는 것입니다. 글썬요, 그것은 지금 당장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증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서부 아나톨리아 출신인 루카족은 용병으로 이용되었으며 사나운 해적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아나톨리아 남서부의 루키아족과 동일시된다. 그들은 Merneptah의 통치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루카는 여기 오른쪽 화면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남서부 아나톨리아에서 왔거나 그곳으로 돌아왔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정보로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초기 비문에 언급된 마지막 부족은 에크웨시(Ekwesh) 입니다. 그들이 히타이트 본문의 아하이오이족 과 연결될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 고유의 아카이아족과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에크웨쉬(Ekwesh) 라는 단어를 보면 이곳 아래 아카이아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어원적으로는 에크웨쉬 와 아가이아가 같은 단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같은 말과 같은 민족이라면, 에크웨시는 우리가 그리스라고 부르는 곳과 아가야라고 부르는 곳에서 이곳으로 왔을 것입니다. Achaia는 Aegean을 말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러한 알파벳 소리 중 일부의 현대 다변형 발음에서 영어 알파벳의 G는 j(치아 소리)이거나 g(후음 소리)일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G가 후두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Ekwesh 와 Achaia는 동일한 것이거나 동일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치적 정체성에 관한 몇 가지 흥미로운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나열한 이 부족들은 이집트 왕 메르넵 타의 연대기에서 언급되는 부족들입니다. 그는 바다 인민 운동을 패배시켰거나 적어도 그가 그들을

패배시켰다고 말합니다. 고대의 왕들, 주의 깊게 읽어보면 고대 역사를 통틀어 왕이 전투나 전쟁에서 패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죽어도 그들은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제 뺨 옆에 혀가 붙어 있는 게 분명해요. 그는 자신이 그들을 이겼다고 주장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악명 높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록은 1220년에 작성된 것입니다. 수십 년 후인 람세스 3세 시대에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가 다누나를 언급한다고 들었습니다.

다누나의 고향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북시리아에서 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성경에 나오는 단 지파와 연결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Ramses III가 Danuna를 언급하더라도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Jecker는 아마도 키프로스를 거쳐 Troad에서 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성문을 쳐부수고 팔레스타인의 도르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이것만은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Dor, 즉 Troad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역사적이며 부분적으로는 신화적인 유명한 트로이의 헬렌에 대한 전쟁입니다. 음, 트로이(Troy)라는 이름은 트로드(Troad) 때문에 그렇게 명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나톨리아 북서쪽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Jecker가 나온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이 바로 이곳 팔레스타인 해안을 따라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람세스 3세가 그들을 물리쳤을 때, 그는 그들을 가자지구와 요파 지역에 가까운 팔레스타인 해안을 따라 정착시켰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또 다른 그룹인 Weshesh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룹입니다.

아마도 프로이트식 방식으로 나의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글썄, 알려지지 않았다면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완전히 부를 필요는 없지만 Weshesh 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제 Palisades는 팔레스타인에 이름을 붙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흥미로울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청중 모두가 팔레스타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음을 자세히 보면 팔레스타인의 자음이 팰리세이드라는 단어의 자음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메르넵타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람세스 시대에 바다민족운동에 가담했던 부족 중 하나가 팰리세이드였는데, 그들은 결국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땅에 자신들의 이름을 붙이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히브리인들이 팰리세이드를 끝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자신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서는 그들의 고국을 그레데인 갑돌이라고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갑돌이 계속해서 남쪽으로 이동하기 전에 잠시 머물던 곳이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우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디로 왔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글썄요, 우리는 이것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에게해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알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지중해 땅에서 왔지만 우리는 어느 땅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체케르 사람들과 함께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여러 장소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정착할 때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물리치고 이 해안을 따라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안을 따라 뺏어 있었습니다.



요르단 강과 갈릴리 계곡이 합류하는 이곳 벳산(Beit She'an)에도 정착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 요르단 암만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들을 블레셋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블레셋은 바다 민족 운동에서 여러 부족을 대표합니다. 글썄, 당신이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일종의 혼란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리버티 캠퍼스에 가본 적이 있다면 매년 여름마다 그것은 바다민족 운동과 같습니다. 시체는 여기저기로 이동하고, 건물은 철거되고, 건물은 단장되고, 사무실은 이전되고,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음, 그것은 일종의 바다민족 운동의 모습입니다.

혼돈, 그리고 우리는 지구상의 무엇이 이것을 야기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뭔가가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촉발시켰습니다. 실제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원인의 정체를 결코 확실히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아마도 단지 터무니없는 추측 이상의 몇 가지 설명을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문제의 원인인지 모를 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 분지 사람들의 놀라운 이동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중 하나가 추측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재앙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즉, 사람들의 이동을 촉발시키는 일종의 재앙이 발생했음을 주장합니다. 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아틀란티스의 불가사의한 실종과 연관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틀란티스가 존재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인간의 균형을 뒤흔드는 거대한 자연 재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동 중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거대한 지진이었을 것입니다.

지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그들은 쓰나미를 일으킵니다. 쓰나미는 항구 도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글썬요, 만약 이 시기에 거대한 해일로 인해 항구 도시가 모두 파괴되었다면, 글썬요, 누가 알겠습니까? 이 견해의 문제점은 재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관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재앙에 대한 고고학적, 지질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이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또 다른 관점은 이주 관점(migration view)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사람들의 새로운 움직임이 권력의 균형을 뒤흔든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라크에 관한 조르주 루(Georges Roux)의 펑귄 책에 제시된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도 다작하고 호전적인 부족인 일리리아인들이 발칸 반도에 도착하여 아나톨리아에서 트라코 프리기아인들을 몰아내고 그곳에서 히타이트 왕국을 전복시킨 다음 도리아인, 아이올리아인, 이오니아인을 그리스 반도로 몰아냈을 것입니다. 에게해 제도와 소아시아 서부 지역, 그곳에서 미케네 또는 에게해 제국, 트로이 전쟁을 멸망시켰습니다.

글썬요, 그럴 거면 나보다는 당신이 수업을 가르쳐야 할 것 같아요. 그가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발칸 지역에서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이주했습니다.

종종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 대초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발칸 반도로 이주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여기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 남쪽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동쪽으로 옮겼습니다. 동쪽에 있던 사람들은 사람들을 서쪽과 남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것은 마치 탁구 경기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앞뒤로, 위아래로, 많은 회전과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점수는 무엇입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주 관점의 문제는 이주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주가 너무 많고 무질서하며 다방향적이어서 고고학에서 일관적인 방식으로 재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지만, 이 점을 물음표로 언급하지 않고는 떠날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이주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중해 유역이나 중동 어딘가에 약간 중요하거나 중요한 이주가 없었던 것은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 이주로 인해 그 시대의 정치 세계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시작한 것이 마이그레이션이라면 물음표 중 하나는 다른 많은 마이그레이션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없었는데 왜 이 마이그레이션에서는 이런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가장 좋은 견해는 세 번째 견해인 기후 논쟁이다.

이제 단순히 자음을 하나 더 추가하면 첫 번째 보기에서 말장난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재앙적인 견해였습니다. 글썄요, 웃기려고 했다면, 어떤 거대한 클라이맥스가 붕괴를 가져왔기 때문에 첫 번째 광경이 클라이믹스 광경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절정적 견해가 아니다. 기후전망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견해는 고대 근동 지역에 엄청난 가뭄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히타이트에게 막대한 양의 곡물을 보낸 이집트 왕 메르넵 타의 경우에서 인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히타이트인들은 식량을 자급자족할 뿐만 아니라 식량을 수송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대 항구 도시인 우가리트가 길리기아로 약 2000마야의 곡식을 운송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량 부족에 대한 약간의 비문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다양한 다른 측정 요소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퇴적물 분석에서 실제로 그 지역을 휩쓸었던 엄청난 가뭄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에 관해 서너 개의 다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들은 이 관을 갈릴리 바다 바닥에 가라앉혔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똑바로 가라앉힐 뿐입니다.

그런 다음 튜브를 위로 당깁니다. 그리고 그 튜브는 바닥에 사물이 어떻게 자리잡고 쌓였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완벽한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퇴적물 수준에 무엇이 있는지 관찰함으로써 놀라운 과학적 정확성으로 그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후 변화가 있었는지 알려줄 수 있는 꽃가루와 공기 중의 물질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구가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한동안 보여주고 있는 것은 갈릴리 바다와 같은 바닥의 퇴적물에 대한 분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에 엄청난 가뭄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많습니다. 대부분 업데이트됩니다. 여기 아래 내 참고문헌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아, 그리고 엄청난 가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학, 고고학이 있습니다.

인디애나 존스의 고고학 개념은 너무 터무니없어서 정말 웃깁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대부분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연륜연대기(dendrochronology)라고 불리는 매우 전문화된 형태의 고고학이 있습니다.

Dendrochronology는 전문가들이 나무의 나이테를 분석하는 고고학입니다. 그들은 나무 나이테의 성장이나 성장 부족을 연구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연구할 수 있고 나무 나이테 성장의 폭에 따라 상황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적대적인 기후 상황이 발생하면 나무 나이테가 기록되지만 매우 좁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들에게 좋은 기후가 있었다면 나무의 나이테가 거기에 있을 것이지만 그 폭은 더 넓을 것입니다. 글썬, 히타이트 지역의 나이테나 브리슬콘 소나무는 우리가 퇴적물 분석에서 배운 것과 동일한 정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기후 변화가 있었던 기간은 1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 가뭄은 강대국이 너무 약해지고, 너무 느리지만 확실히 너무 약해져서 영속할 수 없고 그냥 붕괴될 때까지 강대국이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이유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변화가 인간이 초래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히 과학자는 아닙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리고 나는 그런 종류의 주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천 년 전의 역사를 통해 알고 있는 것은 수분이 많은 기간과 건조한 기간이 주기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뭄의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이 가뭄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가설적인 설명을 내놓은 고고학자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 중 하나는 인구가 인구의 급증을 가져왔다는 것인데 이때는 기후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가지 주요 이론이 있는데, 아마도 둘 다 함께 작용할 것입니다. 한 가지 이론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영토의 넓은 지역이 산림을 벌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규모 삼림 벌채는 기후 건조의 결과였습니다. 음, 우리는 삼림벌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에서도 일어나고 있었고, 레바논에서도 일어나고 있었고, 아나톨리아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구 기반이 폭발하고 인간의 번영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은 당연히 나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가열하고, 요리하고, 불을 밝히는 데 사용합니다.

삼림 벌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기후 변화로 이어졌는지 여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재앙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주요 동물로 무리를 지어 살았습니다. 그들은 양을 몰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염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염소가 양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 대신에 염소를 널리 사용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거나 이 문제의 요인 중 하나이며 염소가 하는 일을 보면 풀을 물어뜯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뽑아내고, 뿌리를 뽑는다.

그래서 그것이 하는 일은 주변 땅에 끔찍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주변 지역에서는 식물이 뿌리를 내리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뿌리를 뽑으면 식물도 죽고 지형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왜 이 놀라운 가뭄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요인으로 주장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가뭄이 있었고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뭄은 아마도 기후 변화의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이 지도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바다 민족 운동에 관한 정말 흥미로운 요소 중 하나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의 이동 중 상당 부분은 이집트로 향하는 이 육교를 따라 이동했거나 지중해를 건너는 배의 소함대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이는 육로와 바다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즉, 바다민족운동의 상당 부분이 이집트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시다시피 이집트는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년에 약 2~4인치 정도의 비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미 극건조한 이집트와 같은 곳으로 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은 이집트에서는 비가 와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경제와 농업은 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홍수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가뭄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 비가 내리고 이집트에 식량이 풍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는 바다 민족들이 이집트에 식량이 있었기 때문에 왜 육지로 남쪽으로 가고 바다로 이집트로 가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왜 이집트로 향했는지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가뭄에 취약하지 않습니다. 그 백업을 호출하겠습니다. 이집트가 가뭄에 취약하지 않다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이집트인들은 비에 의존하지 않지만, 이집트인들은 농사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 실패는 메소포타미아나 시로-팔레스타인 에서와 똑같은 농작물 실패는 아니지만 나일강이 적절하게 범람하지 않으면 농작물 실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있거나 동물의 침입이 있으면 흉작을 겪을 수 있지만 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가뭄으로 인해 흉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 세밀한 세부 사항에 대한 결정적인 답은 결코 알 수 없지만, 원래의 혼란이 무엇이든 운동은 스스로를 먹어치우고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을 쫓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 권력의 질서가 약화되면서 무정부 상태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불법 복제와 일반적인 불법 행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난해한 고대 근동 지중해에 관한 모든 것들로 인해 즐리셨다면, 매우 흥미롭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바다민족운동의 결과.

이 운동에는 두 가지 중요한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세계의 모든 초강대국을 파괴하거나 영구적으로 약화시켰습니다. 장소에 이름이 있는 지도를 보면, 바다민족운동 이전의 장소에 이름이 있는 지도를 보면, 바다민족운동 이후의 지도를 보면 거의 뭐, 대부분의 장소에는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옛 왕국은 사라지고 새로운 왕국이 등장합니다. 오래된 도시는 파괴되고, 새로운 도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대 역사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도를 바꾸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둘째, 지도를 바꾸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미래 위상도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다 민족 운동 이전에 이스라엘은 매우 강력한 강대국들로 이루어진 집단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남쪽은 이집트, 북쪽은 히타이트.

그러나 지금은 그 힘이 완전히 사라졌거나 크게 약화됐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1150년 이후 이스라엘은 초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중요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150년에 우리는 사사기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사기에서 상황이 재앙적으로 엉망이라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민족운동이 1150년에 끝났다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1050년에 왕이 된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 1010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970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합왕국이라 불리는 시대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황금기이다. 현대까지 세계 역사상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 작은 지역이 정치적으로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의 결과로 초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지 않다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제국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수백 마일 너머에 이르는 왕국을 가질 수 있으며 주변 왕국을 그들의 통제하에 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을 어느 정도 성취하실 수 있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번영의 시기가 되었지만, 그것은 단지 상황이 잠시 중단된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930년에 죽자 불과 몇 년 만에 아시리아가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스라엘이 재앙적인 상태에 있는 기간, 즉 사사 시대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번영의 시기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황금시대의 끝입니다.

앗시리아의 등장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정치 권력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독특한 기회의 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자기의 번영에만 몰두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역사를 통틀어 독특한 시간의 창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현대 역사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강력한 정치적 실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현대 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독특한 창이 있는데,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을 놓쳤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바다민족운동은 하나님이 쓰신 건지, 어쩌면 하나님이 가뭄을 보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다민족운동은 이스라엘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창이 닫히면 이스라엘은 현대까지 회복할 수 없는 매우 긴 내리막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주의를 우리 수업 노트로 다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문제.

좋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문제.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되었나요? 글썄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나은 전사였고 더 나은 군국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언급하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는 그들이 창세기에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트에서 볼 수 있듯이 창세기 21장과 26장에 언급되어 있고 신명기 2장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1150년경 이후까지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바다 민족 운동에 참가한 에게해 부족, 아마도 부족들의 집단을 일컫는다. 그들이 창세기에 존재한다고 어떻게 언급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기원전 2100년이고, 바다민족운동이 기원전 1100년이라면, 어떻게 천년을 그렇게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를

설명하려는 다소 약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직책을 맡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그냥 만들어낸 것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의 주장은 우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의 이름을 채택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PLST, Peleset 또는 기타 유사한 이름으로 불렸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 이전에는 그렇게 불렸을 것이고 그들은 단지 그 이름을 채택했을 것입니다.

글쎄요, 그렇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사실은 이 영역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동안 거의 3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텍스트에서는 PLST라고 불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다 민족 운동이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소위 제안된 땅의 이름인 펠레셋과 같은 이름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놀라운 우연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견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더 나은 설명은 창세기의 여러 장에 나오는 블레셋이라는 단어가 시대착오적이거나 얼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창세기의 일반적인 역사 서술에 반대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항상 가능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시대착오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성경 본문은 모든 성경 책이나 성경의 모든 장이 어느 시점, 어딘가에서 누군가에 의해 유래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은 성경의 모든 장, 모든 성경 본문이 수천년에 걸쳐 복사되고 또 복사되고 또 복사되어야 했다는 것을 상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서기관이 본문을 복사하고 다시 복사할 때 때때로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3장을 통해 그날 본문을 복사한 사람이 숫자를 빠뜨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본 텍스트에서 숫자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견해가 주장하는 것은 성경 본문을 복사한 일부 서기관이 원래 블레셋 사람이 없었던 곳에 블레셋 사람을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견해가 의미하는 바는 원래는 가나안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단지 가설일 뿐이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서기관은 그것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나안어를 x'd 로 쓰고 블레셋어로 썼습니다. 글썄, 이것은 가능하다. 하나님은 원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는 필사자들에게 영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복사자가 텍스트를 변경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버전도 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버전에는 블레셋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 번째 요점에서 그들이 기원전 1200년 훨씬 이전의 초기 에게해 이주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즉, 이 견해가 주장하는 것은 해양민족운동 이전부터 에게 해 지역에서 이주해 현재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는 에게 인들이 있었고, 아마도 그들은 상인이거나 무역상이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견해는 창세기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초기 에게 해 사람들 이었다고 주장할 것이며, 해양 민족 운동에 참여한 블레셋 사람들과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견해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테이프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첫째, 펠레세트( Peleset) 라는 부족은 에게해 지역에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문제의 일부입니다. 둘째, 창세기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은 무역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지도를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막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의 최남단 도시인 브엘세바에 있습니다. 바로 사막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래를 위해 그곳에 있었다면 그곳은 정말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셋째, 흥미롭게도 그랄과 브엘세바에 있던 블레셋 왕의 이름은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은 히브리어 이름이거나 셈어 이름입니다. 그것은 왕의 아버지, 또는 나의 아버지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은 평화롭습니다.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 즉 에게 사람들은 매우 호전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는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에게 해 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초기의 증거가 1370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한다면, 제 결론은 창세기의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른다. 시대착오적이거나 필사적인 설명이 아니라면, 창세기에 블레셋 사람이 나오는 이유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마도 최선일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더 나은 답을 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잠시 멈춰서 출애굽 이후의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휴식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흥미롭다. 괜찮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테이프에서 뵈겠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Dr. Don Fowler입니다. 세션 14, 바다민족입니다.